수능성적 불안 수험생 수시 2-2에 대거 몰려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수능성적에 불안을 느낀 수험생들이 수시 2-2 전형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시 2-2 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국외국어대는 126명 모집(서울캠퍼스 기준)에 8천585명이 지원해 68.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지원율 23.3대1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 대학 언론정보학부와 경영학부는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명지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인문계열)의 경쟁률이 42.3대1, 용인캠퍼스(자연계열)가 24.6대1을 각각 기록했으며 인하대는 1천91명 모집에 1만 9천20명이 지원해 17.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1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는 745명을 뽑는 특별전형에 1만3천96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8.7대1로 집계됐으며, 수능성적 없이 논술과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리더십 우수자전형'은 경쟁률 30.6대1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각 대학의 수시 2-2 전형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린 까닭은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껴 아예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조만간 수시 2-2 전형이 마감되는 서강대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도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전 마감된 전남대 광주캠퍼스의 수능 2학기 전형(학생부 60%+심층면접 40%)에는 2천592명 모집에 1만429명이, 여수에는 540명 모집에 1천553명이 지원해 각각 4.02대1, 2.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수능 전에 마감한 조선대 수시 2-2는 2천33명 모집에 6천285명이 접수, 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 겨울엔 내복 입읍시다"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이 2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겨울철 내복 입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민이 내복을 입으면 한 해 1조5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중학생 오늘 첫 학력평가

5개 과목…내신 반영은 학교장 재량

'광주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23일 광주시내 82개 중학교 1천864개 학급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중학생 학력평가는 지난 1986년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가장 늦은 16번 째다.

시험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45분(점심시간 11시55~12시55분)까지 진행된다. 한 과목당 시험시간은 45분이며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시험은 국어(33문항)-사회(33문항)-수학(25문항)-과학(33문항)-영어(33문항) 순으로 실시되고, 수학의 서술형 5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다형이다. 영어에는 듣기평가 5문항도 들어있다.

사회 과목에는 지리·국사·일반사회·세계사가, 과학에는 화학·생물·지구과학·물리가 각각 포함된다. 만점은 100점이며, 모든 과목에서 한 가지 타입으로만 출제된다.

학력평가의 목적이 현재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난이도가 쉬움(3)-보통(5)-어려움(2) 등으로 고르게 출제된다. 문제 출제는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50여명이 맡았다. 정답 및 문제 해설은 시험 당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jinhak.gen.go.kr)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지역과 성별, 공·사립 등을 고려해 선정된 20개 학교에서 학년당 3개 반씩 모두 180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 평가하며 전체 중학생의 10% 수준이 표집 대상에 속한다.

또 평가 표집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학생에게 통지하되 석차를 매기지는 않는다. 표집된 평가의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개청 후 처음으로 중학생 대상 평가를 준비해왔으나 학생·학교·학급간 서열화를 우려한 전교조 측이 반대,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최근 전체 평가 후 표집 대상은 응시생의 10%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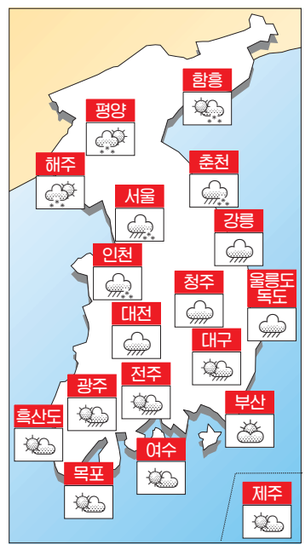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빗방울 교향곡

11월 23일 (음 10월 14일) ◇전국날씨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조금 오겠다.

광 주	흐려져 비	2~13℃
목 포	차차 흐려짐	4~14℃
여 수	차차 흐려짐	5~14℃
완 도	차차 흐려짐	4~14℃
구 례	차차 흐려짐	-1~13℃
해 남	차차 흐려짐	0~14℃
장 흥	차차 흐려짐	0~14℃
고 흥	차차 흐려짐	1~15℃
순 천	차차 흐려짐	-4~14℃
영 광	흐려져 비	2~12℃
진 도	차차 흐려짐	2~15℃
전 주	흐려져 비	2~14℃
남 원	흐려져 비	-3~14℃
흑산도	차차 흐려짐	7~14℃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0:13 12:57 썰물 05:48 18:25
여수 밀물 07:54 20:00 썰물 01:22 13:58

▲해뜸 07:14 ▲해짐 17:23 ▲달뜸 15:58 ▲달짐 05: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 씨						
최저/최고	4/14	4/16	6/13	4/11	3/12	2/11

오늘 小雪…눈 대신 이슬비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3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눈 대신 이슬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 늦게부터 흐려져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기온은 전날보다 1~2도가량 높은 영하 4~영상 15도로, 늦가을 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서해상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이 불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된 후 그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문가와 협의 주민 서비스 펼친다

'동구 희망 네트워크' 출범

광주시 동구청이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주민 서비스 계획을 함께 세우고 추진하는 공동협의체인 '동구 희망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광주시 동구청은 22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구 희망 네트워크' 창립대회와 함께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 네트워크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이종석 관장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평생교육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생활·체육 ▲주거 ▲고용 등 8개 분야로 나눠 조선대 평생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단체 64곳이 참여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분야는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등을 준비하고 추진하게 된다. 또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동구자활후견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노인 가사 간병 도우미·결식아동 지원 등 복지분야를 연구한다.

분야별 참여 업체는▲복지 : 동구노인복지관 ▲문화 : 동구문화원 ▲주거 : 대한주택공사·자활후견기관 ▲고용 : 노인복지회관·고용안전센터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항암제 치료 안되는 백혈병 원인 찾았다

전남대 의대 이승원 교수팀 '종양 표지자' 발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승원(해부학교실·사진) 교수팀이 항암제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일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저항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표지자(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이 교수팀은 혈청의 질량분석, 단백질 분리·동정·정량 및 통계분석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PF-4(Platelet factor-4) 라는 콥티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해(회복)에 관여하는 종양 표지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Molecular & Cellular Proteomics'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정상필기자 camus@

광주경찰청장에 최병민 수사국장 유력

하옥현 前 청장 사표 수리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화순출신인 최병민(52·치안감) 경찰청 수사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후보 28기인 최 치안감은 송원고와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청 방범과장(1996년)·강진경찰서장(1997년)·경찰청 형사과장(2002년)·전남청 차장(2005년) 등을 역임했다.

또 치안감 승진에는 광양출신 박영헌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경무관·간부 28기)이 거론되고 있다.

직위해제된 하옥현 전(前) 광주청장은 22일 사표가 수리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동구청 '건강도시' 선포

광주시 동구청은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유태명 청장·WHO 건강도시연맹 마유미 오미시 박사·국내외 보건의료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선언문 낭독과 건강도시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됐다.

'WHO 건강도시'는 매년 5천여만원의 구청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학교 책상·의자를 디자인하는 등 지역민 건강 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계획·연구·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